

<진청> 1-12

初中大葉

：南薰五絃(風度), 行雲流水(形容) - 순임금이 남훈전에서 오현금을 타듯,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듯.

- 一. 오늘이 오늘이쇼셔 每日에 오늘이쇼셔 오늘이쇼셔=오늘이소서, 덤그디도=저물지도
덤그디도 새디도 마르시고 새라난=(날이)새더라도.
새라난 미양장식에 오늘이쇼셔¹⁾

▶오늘이소서, 오늘이소서 매일오는 오늘이소서. 저물지도 새지도 말고, (날이 새더라도) 늘 변함없이 오늘과 같으소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만 하라’는 말이 생각난다. 기쁜 일, 기쁜 일이 나의 일상으로 찾아오게 될 때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늘 오늘날 같기를...

二中大葉

：海闊孤帆, 平川挾灘 - 넓은 바다에 외로운 배 떠있듯, 평탄한 강물이 여울을 지나듯.

- 二. 이바 楚人사름들아 네 님금이 어디 가니 네 님금=楚의 懷王, 가니=갔느냐
六里 靑山이 뉘 짜히 되닷 말고 六里 靑山=위나라의 장의가 초나라 회왕
우리도 武關 다든 後 | 니 消息 몰라 訶노라 을 속였다는 고사에 나오는 지명, 武關=진
소왕이 초의 회왕을 유인해 가두었던 곳
다든 後 | 니=담은 후니, 가둔 뒤이니, 몰나 訶노라=소식을 몰라서 애태우다의 옛말.

▶여보게나 초나라 사람들아 너희 임금은 어디 있느냐? 六里 靑山이 그 누구의 땅이 되었단 말이나? 아마도 秦의 昭王이 楚의 懷王을 武關에 가둔 뒤이니 소식을 몰라 애만 태우는구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던 중국 전국시대의 일로서, 초나라 회왕이 갇히게되자 그 어리석음과 무력함을 나무라지만, 어찌 보면 회왕이 그리워서 애타는 듯한 모습을 보는 듯도 하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던 중국의 전국시대의 일로서, 전쟁은 군대와 무기의 대결이 되겠지만 때로는 권모와 술수로써 서로가 속고 속이는 전쟁이 되기도 하는 것이 전쟁인 것이다.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간 초나라 회왕은 진의 소왕에 의해 무관이라는 곳에 갇히게 되었다. 이를 바라 본 작자는 초 회왕의 어리석음을 나무라는 것 같기도 하고, 회왕이 그리워서 애타는 모습을 담은 듯하기도 한 이 시를 지은 것 같다.

三中大葉

1)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2) 에서는 ‘새나마 晝夜長常に 오늘이 오늘이쇼셔’ 라고 표기되어 있음.

: 項羽躍馬, 高山放石 - 항우가 말에 뛰어오르듯, 높은 산에서 돌을 굴리듯.

三.부협코 섬겨올 손 아마도 西楚霸王
괴쑹 天下²⁾야 어드나 못 어드나
千里馬 絶代佳人을 누를 주고 가리오

부협코=마음이 들떠서 허황하기도, 섬겨
올 손=싱거운 것은, 약하고 둔하지도 않
은 것은, 괴쑹=그까짓, 西楚霸王=서쪽의
초나라 왕인 항우, 千里馬=항우가 즐겨

타던 말로 烏騅馬를 말함. 絶代佳人=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기서는 항우의
애첩인 虞美人을 말한다. 누를=누구를. 니거니=너는 가느냐의 옛말.

▶들떠 있어 미덥지 못하고 서글픈 것이야 서초패왕 이리라. 동쪽 천하를 얻거나 못 얻거나,
그보다도 천리마와 절대가인 우미인을 누구에게 주고서 가야하는가.

▷漢高祖와 楚나라 項羽가 중국 천하를 兩分하여 갖기로 鴻溝 땅에서 약속할 때 鴻溝를 중
심으로 해서 서쪽은 漢이, 동쪽은 楚가 각각 차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漢楚戰에서 項羽가
패하게되어 東溝를 얻는커녕 사랑하는 虞美人과 千里馬까지도 잃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잃
을 위기에 처하였다. 이 시조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天下가 무슨 소용이냐는 내용을 담고
있다.

(初) 北 殿

: (= 初後庭花) 鴈叫霜天, 草裡驚蛇 - 서리 내린 하늘에 기러기 울고, 풀 속에 뱀이 놀라듯.

四. 흐리 누거 괴으시든 어누거 좇니읍시
던츠 던츠에 벗님 의 던츠로써
雪綿子 가식로운 듯이 뱀그려 노읍서

흐리누거=흐리고 눅어, 괴으시든=괴시
거든, 어누거=얼어 눅어, 좇니읍시=늘
쫓아다니십니다, 던츠=까닭, 가식로운 듯이
=가시(荊)인 듯이, 뱀그려=엷혀져서, 설면
자 =풀숨

▶풀숨에 가시가 엷히듯이 서로 엷혀서 놀자는 내용으로, 남녀간의 성교를 빗대어 말하고
있다.

二 北 殿

: (= 二後庭花) 空閨少婦, 哀怨悽愴 - 빈 규방의 젊은 여인, 원망스럽고 슬프듯.

五.으자 내 黃毛試筆 墨을 못쳐 窓 밖기 디거고
이제 도라가면 어들 뱀 잇거마는
아모나 어더 가더서 그려 보면 알리라

디거고=떨어졌구나, 黃毛試筆=죽제비
털로 만든 붓으로 시험삼아 쓴 글씨.

▶내가 죽제비 털로 만든 붓으로 쓴 글씨가 창 밖에 떨어져, 이제 내가 돌아가면 얻을 수

2) 김영호, 『청구영언 해의』 상권 (삼강문화사, 1994)에는 溝東天下로 표기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원문에 따라 표기하였다.

있겠지만, 누군가 집어갔다면 붓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初數大葉

：長袖善舞，細柳春風 - 소매를 늘어뜨리고 춤추듯, 버드나무가지에 바람이 일 듯.

六.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드나
이시라 흐더면 가라마논 제 구티야
보내고 그리는 情은 나도 몰라 흐노라

어저=감탄사, 내 일이야=나의 하는 일이야
이시라 흐더면=있어 달라고 붙들었더라면
가라마논=갔을까마는, 구티야=굳이

▶아, 내가 한 일도 참 답답하구나. 그토록 그리워할 줄을 왜 몰랐단 말인가.

부디 가지 말아달라고 붙잡았더라면 임께서 떨치고 가기가 했으라마는

굳이 보내 놓고서 이제 와 새삼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나 스스로도 잘 모르겠구나.

※황진이(黃眞伊, 나이 미상)

：중종(中宗)때 송도(松都-개성)에 살던 황진이는 용모가 아름답고 마음씨가 너그로우며 거문고와 노래, 시를 짓는 데에 아주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기녀가 된 후로는 명창(名唱), 율객(律客-음률을 잘하는 사람), 문사(文士-글 잘하는 사람), 학자(學者)들과 사귀며 명산대천을 찾아 놀기를 즐겼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과 화담선생(花潭先生), 박연폭포(朴淵瀑布)를 가리켜 송도삼절(松都三絶)이라고 자랑하였다.

二數大葉

：杏壇說法，雨順風調 - 공자가 단에서 설법하듯, 비도 순순히 바람도 적절히 불 듯.

麗 末

七.白雪이 즈자진 골에 구루미 머흐레라
반가운 梅花는 어니 곳에 피엿논고
夕陽에 홀로 서 이서 갈 곳 몰라 흐노라

白雪이 즈자진 골에=흰눈이 없어진 골짜기
에, 머흐레라=힘하도다, 서 이서=서 있어, 서
서, 夕陽=저녁 해, 해 질 무렵.

▶흰 눈이 녹아 조금씩 남아 깔려 있는 골짜기에 떠 있는 구름장이 험상궂기만 하구나.

그림고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어 있는가

날이 저물어 가는 석양(고려의 말기)에 홀로 서서 어디로도 갈 곳을 몰라 하는구나.

※이색(李穡,1328~1396)

：자는 영숙(穎叔), 호는 목은(牧隱). 문신, 학자. 고려말 공민왕(恭愍王)때 문하시중(門下市中)을 지냈으며,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성균관대제학(成均館大提學) 등 최고 명예를 누리었다. 그러나 조선 건국 후 태조(太祖)가 벼슬에 나오기를 권했으나 끝내 거절하였다. 이색은 스승 이제현이 택한 노선을 발전시키고, 아버지 이곡이 이루고자 한 바를 이어서, 한 시대의 스승으로 등장한 사람이다. 스스로 저술하고 창작한 성과가 대단한 경지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많은 제자를 길러내 사상과 문학에서의 새로운 기풍이 결정적인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고, 후대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다.³⁾

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94), pp.238-239.

圃隱

八.이 몸이 주거 주거 一百番 고쳐 주거 塵土=한 줌의 티끌과 흙, 뼈가 삭아 한줌의 흙
白骨이 塵土 | 되어 녀시라도 잇고 업고 이 되고 먼지가 되는 것을 말함. 잇고 업고=있
님 向흔 一片丹心이야 가설 줄이 이시라 든 없든 간에, 一片丹心=한조각의 붉은 마음,
충성된 마음, 가설 줄이=가식다. 변할 줄이

▶ 이 몸이 죽고 또 죽어서 일 백 번이라도 거듭 죽는 일이 있어
흰 뼈가 다 부서지고 또 다시 부서져 티끌과 흙덩이가 먼지처럼 되어져 녀시라도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임금님께 향하는 한 조각의 충성된 마음이야 변할 까닭이 있겠는가

▷마땅한 도리가 오직 충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상론이었다. 신유학을 구현하는데 앞
장을 섰던 정도전 일파에서는 고려를 대신할 새 왕조를 세워 사회개혁을 철저하게 밀고 나
가는 것만이 도리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했는데, 이에 맞선 정몽주는 고려 충신으로 일생을
마칠 수는 있었지만 자기 입장에서 난국을 타개할 수는 없었다.⁴⁾

※정몽주(정몽주,1337~1392)

: 고려 말의 학자이며 정치가.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圃隱),시호는 문충(文忠).벼슬은 문하시중
(門下侍中)을 지냈다. 성리학(性理學)에 조예가 깊어 동방이학지조(東方理學之祖)라 불렸으며 학당
(學堂), 향교(鄕校)를 지어 유학을 크게 일으켰다.

東浦

九.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興이 절로 난다 江湖=글을 읊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즐겨
濁醪 溪邊에 錦鱗魚 | 안주로다 찾는 경치 좋은 자연. 濁醪溪邊=막걸리와
이 몸이 閑暇히움도 亦君恩이샷다 시냇가. 錦鱗魚=비단결 같은 고운 비늘이
달린 물고기

▶대자연에 봄철이 돌아오니 미칠 듯이 일어나는 흥을 참을 수가 없다.
시냇가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데 안주는 물에서 잡은 신선한 물고기로다
이 몸이 이렇게 한가로이 즐길수도 또한 임금님의 은혜이시 도다.

十.江湖에 녀름이 드니 草堂에 일이 업다 草堂=안채와 떨어져 있으며, 짚이
有信흔 江波는 보내느니 바람이다 나 억새풀 따위로 지붕을 이은
이 몸이 서늘히움도 亦君恩이샷다 집. 有信=믿음직한. 江波=강의 물
결

▶대자연에 여름이 깊어가니 초당에 있는 나에게는 할 일이 없다

4) 조동일, 위의 책, p.248.

더위를 잊게 해 주려는 듯 미덥게 느껴지는 푸른 강물은 시원한 바람을 보내는 구나.
이 몸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초당에서 시원히 지내는 것도 또한 임금님의 은혜시도다.

十一.江湖에 𣎵을이 드니 고기마다 술져 있다
小艇에 그물 시러 흘리 띄여 더더두고 5)
이 몸이 消日하음도 亦君恩이샷다

小艇=길쭉한 작은 배. 흘리 띄여=
물결따라 흐르게 띄워 두고, 더더
두고=던져두고, 내버려두고. 消日=
어떤 일에 재미를 붙여 세월을 보냄.

▶대자연에 가을이 깊어 가니 고기마다 살이 썩 있다.
조그만 배에 그물을 싣고 물결 흐르는 대로 맡겨 놓고
이 몸이 한가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음도 또한 임금님의 은혜시도다.

十二.江湖에 겨월이 드니 눈 기 띄 자히 남다
샷샷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칙지 아니하음도 亦君恩이샷다

자히=한 자(尺)가. 남다=많다의 옛말. 빗
기쓰고=비스듬히 쓰고. 누역=도롱이, 띠
풀 따위로 엮어서 만든 옛날의 우장, 우
비.

▶대자연에 겨월이 깊어가니 내려 쌓이는 눈이 한 자가 넘는다.
샷샷을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를 옷 삼아 입어
이 몸이 춥지 않게 지내고 있음도 또한 임금님의 은혜시도다.

※ 맹사성(孟思誠,1360~1438)

: 자는 성지(誠之).호는 동포(東浦),고불(古佛). 온양 사람으로 고려조에 전교부령(全校副令)을 지낸
희도(希道)의 아들로 권근(權近)한테서 글을 배웠으며 고려 우왕 때 문과에 장원으로 뽑히어 헌납
중서사인(獻納中書舍人)의 벼슬을 지냈고, 이조(李朝)에 들어와 세종때에 좌의정에 올랐다. 말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한가한 생활을 보냈는데, 그 무렵에 지은 것이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등의 시조
이다.

5)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1992) 에는 ‘小艇에 그물 시러 흘니 띄여 더저
두고’ 라고 표기되어 있다.